

중국 저장(浙江) 여행가이드

China Zhejiang Tour Guide

01

중국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을
저장(浙江)
이 핸드북이
도와줄게요

중국 저장(浙江) 여행가이드

China Zhejiang Tour Guide

중국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을
저장(浙江)
이해드릴게요



浙 江 省



저장(浙江, ZHEJIANG)성

저장성의 명칭은 성도인 항저우(杭州)를 지나 항저우만으로 흘러드는 첸탕강의 다른 이름인 저장강에서 유래했다. '저(浙)'란 강물이 급하게 '꺾여(折)' 흐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고유명사이며, 특히 항저우를 지나는 구간은 '갈지(之)'자 모양으로 꺾여 흐른다고 해서 '즈장(之江)'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저장성은 북쪽으로 상하이 시와 장쑤성, 서쪽으로는 안후이성과 장시성, 남으로는 푸젠성과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면하고 있으며 항저우만은 중국 최대의 해만(海灣)이다. 3000여 개의 도서가 속해 있어 중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성이다. 저우산 군도의 주 섬인 저우산 섬은 하이난 섬, 충밍 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전 성 면적의 70%가 산지와 구릉으로 산악 지형이 성 전체에 분포한다. 대부분 지역은 해발 200~1000m 사이에 위치한다. 주요 평원은 성 북부 항저우-자싱-후저우 지역의 평야로 창강 삼각주 평원의 일부를 이룬다. 그밖에 해안 지역과 주요 하천 유역에 평야와 분지가 분포한다. 첸탕강, 어우강이 주요 하천이며 항저우의 서호(西湖, 시후)가 대표적 호수다.

저장성은 춘추시대에는 월(越) 나라의 영토였고,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에 이르러 저장성(浙江省)이 설치됐다. 저장성의 면적은 10만여km²로 행정구역은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자싱(嘉興), 후저우(湖州), 사오싱(紹興), 진화(金華), 취저우(衢州), 저우산(舟山), 타이저우(台州), 리수이(麗水) 등 11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杭州

항저우(항주)_ 2,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상 천국

저장(浙江) 동북부에 위치한 항저우(杭州)는 약 2,2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5대 오월(吳越)과 남송(南宋) 왕조 모두 수도로 정할 만큼 중요한 지역으로 산, 호수, 다리, 탑, 사찰(寺) 등이 조화를 이룬 수려한 풍광 덕에 '지상의 천국'이라고도 불린다.

항저우 여행의 시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호(西湖, 서호)와 대규모 습지공원인 시시시디(西溪湿地, 서계습지)부터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시호구역은 호숫가 공원과 도시 사이에 경계가 없고 무성한 녹지와 운치 있는 가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연의 푸른 기운과 도심의 활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또 연중 꽃 전시회가 끊이지 않아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인기인 태자만공원을 비롯해 항저우 주변의 텐무산(天目山, 천목산), 첸다오후(千島湖, 천도호), 동명산선린궁위안(東明山森林公園, 동명산삼림공원)도 호젓한 여행지로 제격이다. 특히 늦겨울부터 이른봄 사이 항저우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3대 매화성지로 불리는 고산(孤山), 영봉(靈峰), 초산(超山)을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고산에는 1904년 건립된 시린인서(西泠印社, 서령인사)가 위치해 청산녹수 사이로 그윽한 문화적 정취까지 더한다.

이외에도 대형백화점과 고급 호텔들이 밀집해 있는 시내 중심부의 무림광장과 항저우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칭허팡(清河坊, 청하방)역사의 거리 등이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Tour Point

라이딩

서호 풍경 100배 즐기기



수많은 시와 노래 그리고 전설이 들려주는 서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즐기려면 호수가 라이딩이 제격이다. '라이딩하기 좋은 길'로 알려진 만큼 자전거에 올라 달릴수록 풍광 속으로 성큼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차 한 잔의 여유

룽징차



서호에선 여유로운 마음으로 호숫가에 위치한 찻집을 찾아가 보자. 항저우는 중국 10대 명차(名茶) 중 하나인 룽징차(龍井茶, 용정차)의 산지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경치를 마추고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면서 마음을 비우면 이곳이 곧 낙원이 된다.

옛 항저우 탐방

청하방·남송어가



현대와 전통이 시간을 거슬러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항저우는 마치 타임머신과 같다. 바로 직전까지 현대 정서가 듬뿍 담긴 후빈루(湖濱路, 호빈로)를 거닐었는데, 어느 순간 옛 모습을 간직한 칭허팡(清河坊, 청하방)과 남송위제(南宋御街, 남송어가)가 눈앞에 펼쳐진다.



시후(西湖, 서호) ↑

시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규모 인공호수다. 1산(고산·孤山), 2탑(뇌봉탑·雷峰塔, 58보속탑·58 保俶塔), 3제(소제·苏堤, 백제·白堤, 양공제·杨公堤), 3섬(원공돈·阮公墩, 호심정·湖心亭, 소영주·小瀛洲), 5호(리호·里湖, 외호·外湖, 약호·岳湖, 시리호·西里湖, 소남호·小南湖)로 구성돼 있다. 서호의 절경은 봄뿐 아니라 여름에는 연꽃빛을 머금은 연꽃, 가을 밤에는 달빛을 머금은 삼담(三潭), 겨울에는 눈이 내린 뒤 그림자가 가로놓인 홍매화 등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서호십경(西湖十景)이란?

서호의 열 가지 풍경으로 곡원풍하(曲院风荷), 평호추월(平湖秋月), 단교잔설(断桥残雪), 유랑문앵(柳浪闻莺), 뇌봉석조(雷峰夕照), 남병만종(南屏晚钟), 화항관어(花港观鱼), 소제춘호(苏堤春晓), 쌍봉삼운(双峰插云), 삼담인월(三潭印月) 등을 일컫는다.



시시스디(西溪湿地, 서계습지) ↑↓→

시시스디는 여섯 개의 강이 종횡으로 교차, 합류하는 대규모 습지공원이다. 푸른 숲 속 가로수 길은 마치 선경에 온 것처럼 초록빛으로 가득해 절로 힐링이 된다. 서계(西溪)는 예로부터 숨겨져 있는 명소로 인문학적으로도 유래가 깊다. 추설암(秋雪庵), 박암(泊庵), 매죽산장(梅竹山庄), 서계초당(西溪草堂) 등은 모두 역사적으로 많은 문인과 선비들이 일군 부업이다. 심담구(深潭口) 100년 묵은 녹나무 아래 있는 고희대(古戏台)는 월극(越剧) 북파 연예인들의 초연지로도 알려져 있다.



송청(宋城, 송성) ↓

송청은 중국 최대의 송나라 문화테마파크다. 괴물거리(怪街), 불산(佛山), 시정거리(市井街), 송성하(宋城河), 천년고장(千年古樟), 구룡광장(九龙广场), 성루광장(城楼广场), 문화광장(文化广场), 요재경혼(聊斋惊魂), 남송풍정거리(南宋风情街) 등 한걸음마다 한가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광장지 내부에는 서로 각자 매력을 뽐내며 절경을 이루는데 송나라 시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송성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지주 왕씨 집안 따님이 노리개(천으로 만든 자수 놓은 공)를 던져 사위를 구하는 퍼포먼스도 유명하다. 새해 사찰장날(新春庙会), 횃불축제, 송고란축제(泼水节), 계수나무꽃축제(桂花节) 등 4대 축제가 다채로움을 더해준다. 대형 가무 《송성천고정》(《宋城千古情》)은 송성의 제일이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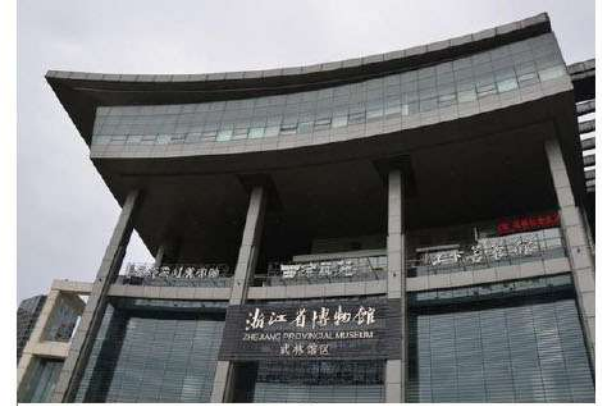
항저우 특산품(杭州特産)

항저우에는 특산품이 매우 풍부해 선물하기에도 좋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룡정차(龙井茶, 용정차), 천축절가락(天竺筷), 청화산 호두(昌化山核桃)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실크명주실(真丝绢), 서호비단양산(西湖绸伞), 고향단(古香緞), 천목운우차(天目云雾茶), 연근보말(藕粉), 장소천 가위(张小泉剪刀), 항저우 자수(杭州刺绣) 등이 있다.



저장성박물관(浙江省博物馆) →

저장성박물관은 중국 남동부 7,000여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구 관저 일부는 강남의 유명 장서루(藏书楼)인 문란각(文澜阁)이다. 청나라 황제의 행궁유적과 강남의 유명한 황실 장서루인 문란각은 Ningbo Tianyi Ge(宁波天一阁, 천일각)을 본뜬 전형적인 강남정원식 건물이다. 정랑(亭廊), 지교(池桥), 가산(假山) 등이 서로 조화를 이뤄 건축과 조경 풍치림의 배치에 운치와 특색이 있다. 박물관에는 역사유물관, 청자관, 서예관, 화폐관, 공예관, 선물관, 여허광(吕霞光)예술관, 상서홍(常书鸿)미술관, 명청가구관, 부티크관 등 10개의 전시관이 있으며 소장품만 약 10만점에 이른다.



<인상시후> 실경공연(<印象西湖> 实景演出) ↓

<인상시후>는 세계적 감독 장이머우(张艺谋)가 서호를 실제 배경으로 삼아 제작한 대형 수상공연이다. 공연은 주인공 '허선(许仙)'이 작은 배를 타고 수중극루(水中阁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삼각형의 우산이 호수 중앙에서 솟아오르거나 두 마리의 큰 새가 호수에서 날아오르는 장면, 장정영(张靓颖)의 <인상·서호우(印象·西湖雨)> 노래에 맞춰 백낭자(白娘子)와 허선이 서로 사랑하는 장면 등 광활한 호수를 배경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조명이 특별한 볼거리다.





첸탕장다차오(钱塘江大桥, 전당강대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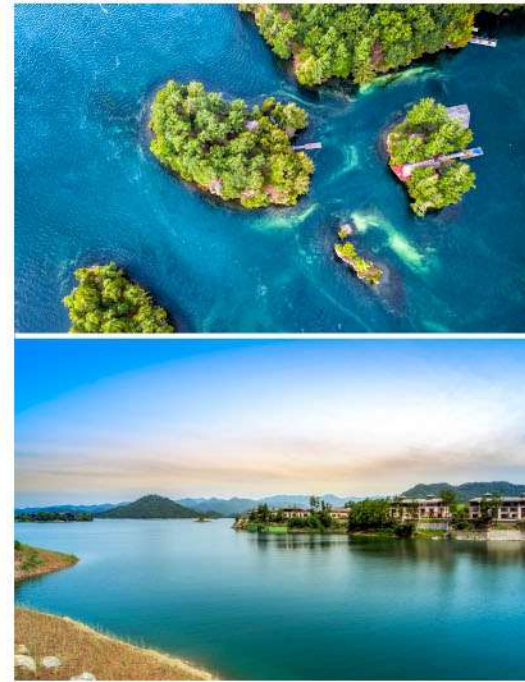
시후, 레이펑(雷峰)탑에 이어 첸탕장다차오(钱塘江大桥)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항저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중국의 저명한 교량학자인 모이승(茅以升)이 직접 설계한 이 다리는 리우허(六和)탑 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최초로 자체 설계한 철강구조의 2층 도로 및 철도 겸용 다리다. 다리 위에 서면 리우허(六和)탑 전경을 비롯해 항저우의 산과 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매년 음력 8월이면 대조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TIP

항저우 요리(杭州菜)

항저우 요리는 품미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식도락 풍류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중국 8대 요리방식 중 저장요리(浙菜)에 속하는데,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항저우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苏东坡)는 '천하의 술잔치에는 항성 만한 곳이 없다'고 극찬한 바 있으며, '항기에 끌려 말에서 내렸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항저우 텐상러우(天香楼전향루)의 동파육, 러우외이러우(楼外楼, 누외루)의 서호초어(西湖醋鱼)는 해외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별미로 오산바스킷(吴山酥油饼), 금화술병(金华酥饼) 등을 비롯해 항저우 규원관(奎元馆)의 새우튀김어육면(虾爆鳝面), 지미관(知味观)의 행복한 님섬(幸福双点心), 후저우 당옌팡 천장만두(湖州丁莲芳千张包子) 등도 항저우를 찾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첸다오후(千島湖, 천도호) ←

1078개의 섬은 마치 하나하나의 비취옥이 너도나도 뿔내고 있는거 같다. 작은 것은 마치 한마리 소라 같고 큰 것은 천리의 비취숲 같다. 크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첸다오후는 계림(桂林)의 산과 호수와 필적할 만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태호 동정도도 능하할 만큼의 웅장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천도호의 푸른 물결은 첸탕(钱塘)강, 푸춘(富春)강, 신안(新安)강과 굽이굽이 이어져 있어 더욱 장쾌하고 아름답다. 그 물빛은 때론 짙고 때론 옅으며 때론 깊고 때론 얇아 빛갈이 교차되어 마치 청록색의 비단과 같고 질푸른 바다와도 같다. 외래인이 천도호를 방문하면 눈동자가 먼저 푸르게 물들고 마음도 덩달아 푸른 빛갈에 도취 된다.

우린광장(武林广场, 무림광장) →

서호의 북쪽에 위치한 무림광장은 항저우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다. 인타임몰(银泰商城), 백화점, 항저우빌딩(杭州大厦) 등 쇼핑센터가 즐비하고 교통이 편리해 항저우 어느 곳에서든 이동이 자유롭다. 샤오산(萧山)공항에서 우린먼(武林门)으로 오가는 버스가 있어 더욱 편리하다. 특히 무림광장 남쪽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연안로는 고급 부티크, 명품 브랜드 전문점, 할인매장 등이 밀집해 있어 '쇼핑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寧波

닝보(녕파)_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문화 도시

닝보(寧波,녕파)는 중국 해안선의 중앙과 양쯔강 삼각주 남단에 위치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다. 비교적 부유한 ningbo는 저장성의 현대적이고 모던한 도시의 전형으로 꼽힌다. ningbo는 바다로부터 이름을 얻었고 바다 덕분에 번성하게 된 곳이다. 역사가 깃든 상업 도시로 오래된 골목길과 현대적인 상권이 조화를 이룬다. 시가 함께하는 옛 풍경과 창조적인 건축물, 동양의 사원과 서양의 교회당, 전통 문화와 현대적 유행이 뒤섞여 공존하고 있어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닝보는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돼 수많은 이야기기 전해 내려오는 도시다. 당나라에 세워진 이후, 중국 최초의 사립 도서관인 '텐이거(天一閣, 천일각)'을 비롯해 불교계의 영향력 있는 많은 선사들, 그리고 상하이 외탄의 역사보다 더 긴 라우와이 탄(老外灘, 노외탄)이 만들어졌다. 7000년 전 '하모도(河姆渡) 문화'의 탄생지이자 당나라 '해상 실크로드'의 동방의 기항지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 대운하의 남쪽 끝에 있는 해항에서부터 현대 양쯔강의 '5대 상업항'으로 부상하기 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다. 역사상 이름을 떨친 '양명학파'부터 ningbo와 세계 각지를 밀접하게 연결시킨 '닝보방(寧波幫)'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ningbo가 특별한 도시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Tour Point

수천 년 이어온
문학의 도시



문학의 기운은 ningbo를 오랫동안 감싸고 있다. 중국 최초의 사립 도서관 천일각을 비롯해 수많은 고대서적과 역사를 대변하는 진한 책의 향기가 스며 있다. ningbo가 배출한 위대한 유학자로는 방효유(方孝孺), 왕양명(王陽明), 황종희(黃宗羲)이 있으며 고대 문인들이 회합을 이룬 장소인 백운정(白雲莊), 도원서원(桃源書院)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장개석의 고향
시커우(溪口, 계구)



장개석의 고향인 시커우는 동쪽으로 우링(武陵), 남쪽은 산시(剡溪), 북쪽은 세더우(雪竇) 산과 접하고 있다. 특히 세더우 산 위에 서면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목가적인 풍경의 시커우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장개석의 일생이 깃든 장개석 고택은 잠시 근대의 중국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해준다.

24시간이 모자라
맛집의 향연



닝보의 간식으로 대부분 '닝보탕원(寧波湯圓)'을 꼽을 만큼 '중국에서 탕원이 가장 맛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입 베어 물면 탱글 탱글한 식감과 진한 달콤함이 입을 즐겁게 한다. 탕원 외에도 떡과 소훈론, 유전자(油贊子), 면결면(面結面), 천층병(千層餅) 등 수십 가지의 간식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특히 ningbo는 항구도시이기에 해산물 요리도 일품이다. 즐거운 바다 낚시 이벤트에 참여해 일일 어부가 돼보는 것도 좋다.



텐이거(天一閣, 천일각) ↑

천일각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도서관이자 Ningbo의 대표적인 명소다. 명나라 가정(嘉靖) 연간 퇴임관리인 범흥(範欽)이 지은 가족도서관(1566년 건립)으로, 현재도 30만여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해당 서적들은 대부분이 명나라 시대의 판본과 초본이며 대부분이 중국내 유일본이어서 가치가 더욱 크다. 건물 안에는 고서와 탁자가 놓여 있고, 곳곳에 책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천일각은 장서 외에도 강남의 원림으로, 고풍스러운 벽돌과 나무로 된 긴 복도가 인상적이다. 원림 내에는 명주비림(明州碑林)이 조성돼 있고 수백 개의 비석에는 고대 관공서의 교육사를 담고 있다. 또 서화관에는 천일각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서화들의 명품과 유명 인사의 뛰어난 서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라우와이탄(老外灘, 노외탄) ↓

싼장커우(三江口, 삼강구)에 위치한 노외탄은 '오구통상(五口通商)' 중 최초의 대외 개방지역으로 1842년 남경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면서 상해 외탄보다 20년 앞서 생겨났다. 현재 중국 내 몇 남아있지 않은 100여 년 된 외탄 중 하나다. 지금도 아름다운 유럽풍의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름답게 조각된 석조 건축물은 옛 이야기를 꽃피우게 한다. 강변을 따라 외국영사관, 가톨릭교회, 은행, 기선 부두가 일렬로 늘어서 있어宁波 개항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다. 노외탄을 거닐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우아한 바와 레스토랑으로 꾸며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쉬에더우(雪竇, 설두)산 ←

닝보시 시커우(溪口)진 서북 9km 지점에 위치한 쉬에더우산은 면적 85km²로 독특한 풍경은 물론 중국 내 관광문화과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산 정상 유봉(乳峰)의 샘에서 백색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우유와도 같다고 하여 유천(乳泉) 혹은 설두(雪竇)라 불렀다. 쉬에더우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는 쉬에더우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람 요소 중 하나인 삼은담(三隱潭) 폭포가 출발지점이다. 각각 형성시기가 다른 3개의 폭포 군을 일컫는 ‘삼은담’이란 이름은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 그곳에 폭포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의미다. 실제로 위에서 볼 때는 연못만 보이고 폭포는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연못 가까이 내려가야 비로소 멋들어진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쉬에더우산에는 17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 쉬에더우사가 있다. 아홉 개의 봉우리가 사찰을 둘러싸고 폭포가 어우러져 경치가 수려한 사찰로 진(晉)나라 때 창건돼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 전성기를 맞았다. 남송 시대에 ‘오산십찰(五山十刹)’ 중 하나였고 명나라 시대에는 ‘천하선종십찰오원(天下禪宗十刹五院)’에 올라 현재 중국에서 다섯 번째의 불교 명산으로 꼽힌다. 미륵도장인 쉬에더우사 경내에는 구리로 만든 노천 미륵대불이 있는데, 총 높이 56.7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좌불이다. 지난 2008년 11월에 대외에 개방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쉬에더우산을 유람하려면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보와 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으로 유람이 가능하며 풍경구 내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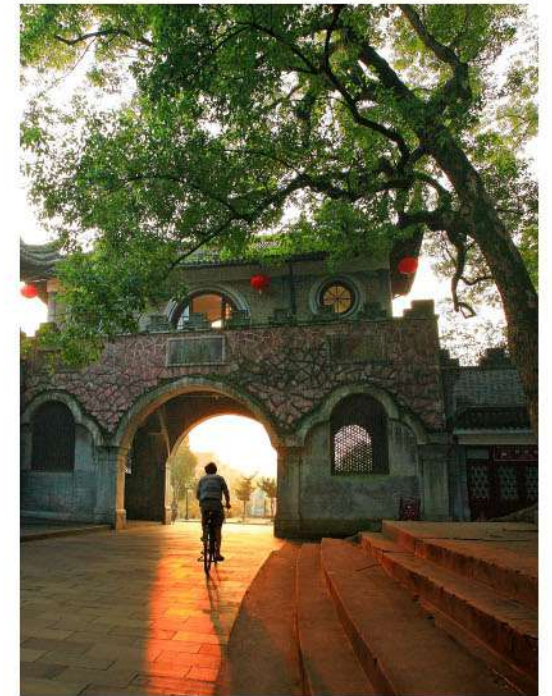
닝보박물관(寧波博物館) ←

유명 디자이너 왕수(王澐)가 디자인한 닝보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매우 모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닝보의 오래된 건물에서 떼어내 온 푸른 벽돌을 사용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정취를 물씬 풍긴다. 전시장은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은 임시 특별전시, 2층과 3층은 무료로 운영되는 상설 전시장이다. 이 중 2층의 테마 전시인 <동방 ‘신주(神舟)’ 닝보의 역사전사>는 많은 볼거리로 채워져 있다. 3층에는 죽각(竹刻)과 닝보의 민속적 특색이 있는 전시품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중에는 오래된 닝보 골목을 복원해 재현한 곳이 있는데, 마치 20세기 초의 닝보 거리를 걷는 기분마저 들게 한다. 닝보박물관 맞은 편에는 닝보의 ‘센트럴 파크’라 불리는 인저우(鄞州, 은주) 공원이 무료 개방돼 있어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휴식처가 돼준다.



시커우(溪口) 장개석 고택 →

시커우의 장개석 고택은 장개석과 그의 아들 장경국(蔣經國)을 비롯한 장씨 가문이 살던 집단 건축물이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근대 건축물로 장씨 가문의 역사는 물론 장개석과 장경국의 1949년 전 고향 생활 궤적을 알 수 있다. 장학량(張學良)이 서안사변 후 구금된 이후의 첫 번째 거주지이기도 하다. 고택 북쪽으로는 북송 인종황제의 꿈의 산이었던 쉬에더우산이 인접해 있다. 쉬에더우산은 장개석이 평화(奉化)에서 살면서 사랑했던 곳이다.





溫州

원저우(온주)_대자연의 손길이 머무는 곳

원저우는 산수가 빼어나 예부터 '동남 산수는 천하제일'이라는 말로 표현되던 곳이다. 거대한 기암괴석과 험준한 산봉우리, 신비로운 협곡과 바위절벽, 수려한 강 등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다. 대표 관광지로 연당산(雁蕩山, 안탕산)과 난시장(楠溪江, 남계강)이 있다. 연당산에 오르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을 배경으로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난시장과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소항저우(小杭洲)라고 불릴 만큼 발달한 항구도시 원저우는 교통도 편리하다. 공항, 고속철, 경전철, 여객운송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자연유람을 즐길 수 있다. 원저우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발전한 도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원저우를 걷다 보면 친화력 넘치는 원저우 지역민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불패 정신과 강인한 기질은 원저우의 독특한 경제모형을 만들어내며 시대를 앞서가는 원동력이 돼 왔다.

Tour Point

신비로운 명산 연당산(雁蕩山)

약 1억2000만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연당산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지질학·지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수려한 경관으로 이미 이름나 있으며 산 곳곳에 역사 문화적 명인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절벽동굴과 관음사 등이 있어 인문학적 향취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중국 산수시의 요람 난시장

'천하제일수(天下第一水)'로 불리는 난시장은 중국 산수시의 요람으로 불린다. 유유자적 흐르는 삼백리 난시장은 자연풍광과 어우러져 특별한 운치를 선사한다. 강 유역에는 수백 개의 옛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영가본토 탄생의 '영가사령'과 '영가학파', '영가군곡' 등이 중국 문화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느끼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원저우에는 인공적이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듯한 민박이 많아 시골의 정을 자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난시장과 연당산 주변의 민박집들은 산을 마주하고 있어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흙 냄새가 물씬 풍긴다. 따스한 인정과 풍속적인 문화의 특색이 어우러져 중국인들이 말하는 '국화재화동을 아래 남산을 유유히 만나다'는 삶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원저우의 옛이름 '구(甌)'의 유래

'구(甌)'는 원저우의 옛이름이다. 먼 과거 원저우 지역에서 대량 생산된 옹기 등을 가리키는 '구'를 일컫는다는 설이 있다. 이 외에도 이 땅에 대대로 살던 '구인족'과 그들의 토맹인 신조(神鳥)를 지칭하는 '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어떤 설이든 원저우의 역사가 꽤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연당산(雁蕩山, 안탕산) ↑

원저우 러칭(樂淸) 경내의 연당산은 산세가 신비로워 ‘바다의 명산’ ‘세상의 절승’으로 불리는 곳이다. ‘안탕삼절’이라 불리는 영봉(靈峰), 영암(靈岩), 대룡추(大龍湫)는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다. 삼절폭에서 쟁명곡도 둘러볼 것을 권한다. ‘안탕의 제1승경’으로 평가되는 삼절폭을 지나 지금은 연당산삼림공원이 된 쟁명대협곡에 이르는 길은 마치 선계에 온 듯 아름답다. 인기 드라마 <신조협려> <랑야방> <선검기합>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사랑 받고 있다.

연당삼절(雁蕩三絶, 안탕삼절): 연당의 세 가지 절경

연당산은 8개의 경관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장 유명한 영봉, 영암, 대룡추를 일컬어 안탕삼절이라 한다. 겹겹이 포개진 기이한 봉우리와 이색적인 동굴이 매력적인 영봉은 낮에 구경하는 일경(日景)과 밤에 구경하는 야경(夜景)으로 나뉜다. 낮에는 주로 합장봉, 관음동, 고동, 복두동 등 명승지를 구경한다. 야경은 어느 쪽을 보며 걷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이 묘한 느낌을 주는데, 특히 합장봉은 낮에 본 모습과 전혀 다른 형상으로 다가온다. 영암은 삼절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연당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뛰어나다.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영암사(靈岩寺) 뒤편에는 병풍과 같은 병하장(屏霞嶼)이 있다. 절벽 위 ‘영암 비도’의 줄타기 공연, 와룡굴 탐방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절경인 대룡추는 연당산 마안령(馬鞍山) 서쪽 4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약 190m에 이르는 폭포다. 바위절벽을 타고 흐르는 웅장한 물줄기 소리가 멀리서도 귀를 울리고 구슬처럼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목격할 수 있다.



난시장(南溪江, 남계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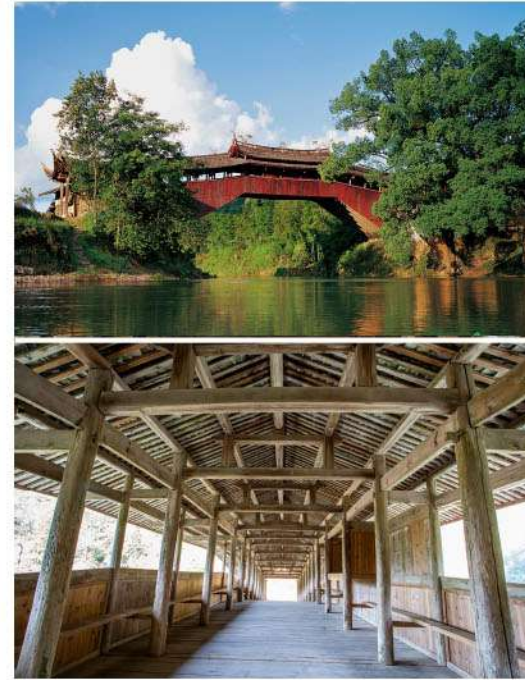
원저우 산과 물의 하이라이트는 난시장이다. 난시장은 대남계(大南溪), 대약암(大若巖), 석치암(石柵巖), 사해산(四海山), 태평암(太平巖), 암탄계(巖坦溪), 원두(源頭)과 진계(珍溪) 등 8대 경치로 구성돼 있다. 유유히 흐르는 물, 기괴한 모양의 암석, 수많은 폭포, 아름다운 산림, 옛날 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로 유명하다.





장신위(江沁嶼, 강심서) ↑

장신위는 중국의 4대 외딴 섬 중 하나로 예부터 '구강봉래(甌江蓬萊)'로 불렸다. 시인 이백, 두보, 맹호연, 한유, 사령운, 육유, 문천상 등이 머물렀다는 이유로 '시의 섬'으로도 불린다. 장신위 유적지로 강심사, 동서생탑, 호연루, 사공정, 구곡교 등 역사 속 명소가 한곳에 위치해 1~2시간 정도면 대부분 둘러볼 수 있다. 매일 오후 7시 10분과 8시 40분에 8분간 펼쳐지는 조명 쇼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벽파호, 서탑, 능운교, 호심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란한 조명과 음악, 분수가 함께하는 특별한 볼거리다. 쇼의 주제는 '조해현음, 두성명주, 시도천추, 강천불국, 심서전기, 강산승람' 등 여섯 개의 시로 천년의 단선 이야기를 풀어냈다.



타이순량차오(泰順廊橋, 태순량교) ←

태순은 '중국 량교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건축적인 조형미가 뛰어난 량교가 수십에 달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설계되고 세워진 량교들은 세계 교량사에서 일품으로 일컬어지는 '청명상하도' 홍교의 구조를 재현한 것이다. 현재 34개의 량교가 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어 다양한 형태의 량교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을 즐겨도 좋다. 그 첫 코스로 량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태순 량교 문화원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바이장지(百丈漈, 백장제) →

바이장지는 깎아지른 듯한 협곡 사이에 계단식으로 이어진 최대 폭 51m에 달하는 거대한 폭포다. 높이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높이가 207m에 달하는 첫 번째 폭포는 중국 최고의 폭포로 손꼽히며 2013년 상하이 세계 기네스 본사에서 '중국에서 단일체 낙차가 가장 높은 폭포(평년 유수)'로 인증 받았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고 햇빛에 반사되는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번째 폭포는 높이 85m로 검은색 절벽을 따라 꼬인 줄처럼 굽이쳐 흐르고, 높이 12m의 세 번째 폭포는 기묘한 형태의 바위에 둘러싸여 유유히 쏟아져 내린다.





Tour Information

저장성의 기후

저장성은 지역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며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다. 여름은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지며 가을 날씨는 온난하고 건조한 편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북부 지방일수록 다소 춥게 느껴진다.

가장 추운 겨울 날씨인 1월 평균 기온은 2~8°C에 머무르고, 한여름인 7월의 평균 기온은 27~30°C이다. 연간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1,000~1,900mm에 이르는데, 초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늦여름에는 잦은 태풍이 찾아온다.

적당한 여행시기

저장성은 4계절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특별히 여행 적정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1년 내내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느낌으로 여행하기 좋은 지역이다. 특히 봄 꽃이 만발하는 계절인 3~5월에 저장성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만약 초여름과 늦여름에 저장성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장마에 대비한 우산과 우비 등을 챙겨 갈 것을 권한다.

저장성 항공노선

항공편	시간	노선	항공사	운항주기
CA140	화요일 14:35	인천-항저우(杭州)	에어차이나	주1회
9C8626	금요일 15:15	인천-닝보(寧波)	춘추항공	주1회
BX369	일요일 09:30	인천-닝보(寧波)	에어부산	주1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인천-원저우(溫州)	티웨이항공	주1회

중국 여행 출입국 정책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1부
-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여권용 컬러 사진 1장
- 3) 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

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중국 대사관 비자센터 문의)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6층	02-750-9600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 5층	1670-1888
광주	광주시 북구 금남로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062-529-1810
제주	제주시 노형동 720-1번지 하나빌딩 502호	064-742-1811

발행처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
02-751-9355

기획 정진철 부센터장

편집 중앙일보s

디자인 책읽는다락방

아트디렉터 김동범

인쇄 삼화인쇄

발행일 2021년10월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재가공을 금지합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 등)의 저작권은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배포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